

광주유아교육진흥원, 예술인이 진행하는 '겨울방학 특별 가족체험'

창작판소리 '용이와 꼬마 소리꾼' 프로그램 운영 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마당 마련 나서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은 지난 4일 겨울방학 특별 가족체험에 지역 예술인이 진행하는 창작판소리 '용이와 꼬마 소리꾼' 프로그램을 만 3~5세 자녀를 둔 가족 80여 명(40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5일 유아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체험 마당은 유아에게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소개하고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문화재단과 연계해 우리 지역 예

술인들과 함께하는 겨울방학 특별 가족체험을 기획했다. 이날 놀이 한마당에서는 창작 판소리 '개와 닭' '새양쥐'의 '소리' 탐색을 통해 판소리의 재미를 느끼는 활동을 진행했다. 또 '아니리' 중 휘모리 장단에 맞춰 풍부한 말놀이를 경험하고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돼 게임을 하며 협동심을 기르는 특별 체험도 이뤄졌다.

이번 특별 가족체험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판소리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다양한 소리 탐색 활동을 통해 전통음악에 더 친숙해지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이런 예술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체험을 즐긴 한 유아는 "엄마, 아빠랑 같이 생취가 돼 보고 우리나라 전통 노래도 재미 있었다"고 한껏 즐거운 기분을 드러냈다.

유아교육진흥원 김경례 원장은 "우리 지역의 전통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유아와 가족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더불어 지역사회 예술인들에게는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는 역할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전남교육청, 2023. 학교급식 기본계획 설명회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전남도청 김대중강당 및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2023. 학교급식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남교육청은 영양(교)사 및 학교급식 담당자 87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설명회에서 체계적인 급식 운영 및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해 학생 건강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도교육청은 특히, '2023.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급식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체력 학생 및 비만을 감소 위한 학생건강증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 아래 체육·보건·영양교사 협업 교육 및 유관기관 연계 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학교급식 기본계획과 함께 △ 학교급식 영양상담 매뉴얼 △ 영양관리 강화 및 식단 운영 방안 △ 기후 위기 대응 저탄소 녹색급식 운영을 위한 다양한 연수 계획 △ 학교급식 환기시설 정책 안내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화순교육청,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영재교육원 비전캠프 성료

교육활동 담은 영상 상영회·성과물 전시회 함께 개최



화순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3일 '2023.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화순영재교육원 비전캠프'를 열렬한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수료식에는 2023학년도 화순영재교육원 중학생을 비롯한 48명의 멘티 학생, 35명의 서울대생 멘토, 30여명의 학부모, 화순 군청 관계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회와 성과물 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2023.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화순영재교육원 비전캠프는 1월 30일부터 2월 3일, 5일간 1:2 멘토-멘티 맞춤형 밀착지도 방식으로 진행되

어 학생들의 진로 지도와 학습 동기 강화에 큰 도움이 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수료식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 아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 빨리 영재원을 가고 싶어할 정도로 너무 좋아했다."며 "서울대학교에 직접 찾아가 멘토 선생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고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희 교육장은 "꼼꼼히 준비한 만큼 철저히 운영된 훌륭한 프로그램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멘토들의 책임감과 준비성과 같은 삶의 자세까지 배워기를 기대한다."며 "화순교육지원청과 서울대학교 사범대 학생들의 인연이 앞으로도 이어져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자리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이슬기자

진도교육청, 마을배움지원교재 발간

미래 보배섬 진도의 발전 모습 그려볼 수 있도록 구성

진도교육지원청은 '미래핵심 역량을 키우고 앓과 삶이 연결되는 지역화 교육과정'과 '교사에 의해 해석되고 수업을 통해 실현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배움지원교재 「보배섬 보물찾기」를 발간하였다. 「보배섬 보물찾기」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와 창의·체험 시간을 활용하여 진도의 역사·지리·인문·사회 등 지역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 스스로 고장의 직면한 문

제들을 찾아 직접 해결하며 미래 보배섬 진도의 발전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집필진으로 교재 개발에 참여한 선생님들은 "다양한 주제와 소재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지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와 토의·토론, 제작 등의 일련의 학습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역량이 성장하고, 내 고장 진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교재 개발 의도를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장흥학생연합회, 군수와 장흥 미래발전 간담회 실시

개선방안 위한 의견 나뉘

장흥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장흥학생연합회 학생대표 7명이 장흥군청 군수실을 방문하여, 군수(김성)와 함께 장흥 미래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장흥고, 장흥중학교, 장흥중 학생들로 이루어진 대표들은 김성 군수에게 장흥에 있는 학생들과 군민들을 위한 교육과 미래 발전 과제로 학생 전용 스포츠·문화 예술 공간 마련, 버

스정류장 전자정보기기 설치, 읍단위 스티디실 마련, 자전거 도로와 인도 확충, 지역사회중심 금요지원 서비스 확대, 시각장애인용 편의를 위한 보도블럭 설치, 해외연수 기회 제공을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흥학생연합회 회장 관산고 이세진 학생은 "우리가 작년에 지역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모은 의견들을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함께 의견을 나누어 주셔서 장흥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